

남재현 해수부 차관, 고수온 대비 양식 수산물 물가 점검

- 인천 종합어시장 찾아 광어, 우럭 등 활어 물가, 고수온 영향 선제적 점검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0일(목)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광어, 우럭 등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시장 상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름철 고수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식수산물의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둘러보며 광어, 우럭 등 활어의 입고 물량과 판매가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산물 물가 수준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느끼는 양식수산물의 출하·유통 여건과 애로사항, 정부에게 바라는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남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양식수산물의 생산·출하·유통 현황을 면밀히 살펴 수급 불안 요인에 사전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께서 여름철에도 부담 없이 신선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이석진 (051-773-5447)